



numbers
vol. 260

교회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

목회자와 교인 모두 '당회' 역량 낮게 평가!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인식
- ② 세계 기아 실태

2024. 10. 22.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목회자와 교인 모두 '당회' 역량 낮게 평가!

현대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교회 역시 목회자와 교인, 여러 세대, 직분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양한 세대, 그룹을 하나로 묶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야 하지만 점점 더 세분되어 가는 구조 속에서 서로 간 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내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 내 목회자와 교인 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조사개요

구분	담당목사	교인
조사 대상	담당목사	교회 출석 기독교인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온라인 조사(온라인 패널)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 표본)	총 1,0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편의추출	교회 출석 기독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가정할 경우 $\pm 3.1\%p$ (95% 신뢰수준)
자료 처리	교회규모별 가중치 적용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 ~ 25일	2024년 7월 19일 ~ 26일
조사 의뢰 기관	한국교회지도자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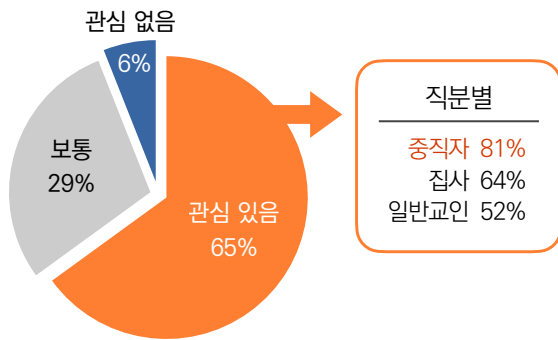
01

[교회와 교인의 소통 실태]

한국교회 교인 3명 중 2명, '우리 교회 소식에 관심 있다'!

- 교회는 보통 주보, 예배 중 광고, 홈페이지, 문자/카톡, 소그룹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교회의 소식과 정보를 교인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교회 소식이나 정보에 교인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교인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65%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 교회 소식에 대한 관심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직자는 81%가 '관심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교인의 관심도는 절반 정도인 52%에 머물렀다.

[그림] 교회 행사/프로그램/교인 동정 등 소식에 대한 관심도*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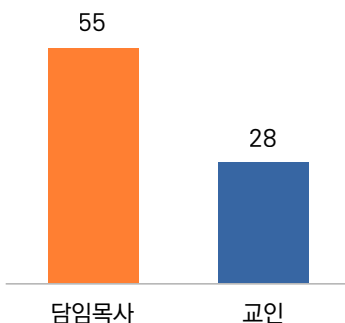


*5점 척도

교회 소식 소통 개선점, 목회자: 다양한 매체 사용, 교인: 방법보다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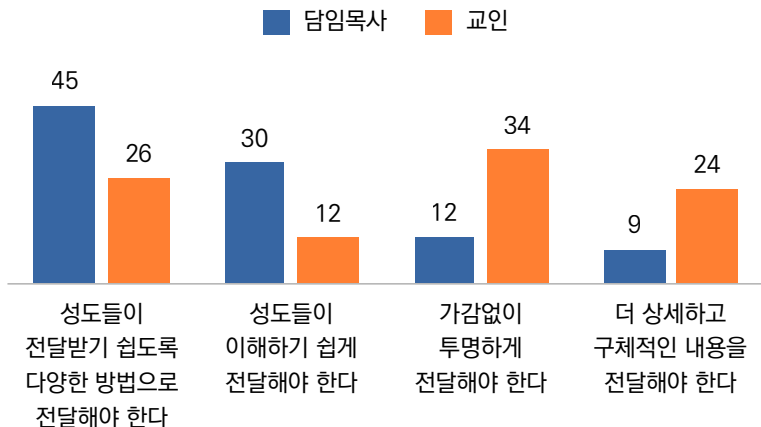
- 이러한 교회 소식/정보 전달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담임목사의 5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인이 느끼는 개선 필요성은 28%로 담임목사의 절반에 불과했다.
- 교회 소식/정보 전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에게 개선 사항을 물어본 결과 담임목사와 교인의 응답이 상이했는데, 담임목사는 '다양한 방법 전달(45%)'과 '이해하기 쉽게 전달(30%)'을, 교인은 '투명하게 전달(34%)', '구체적인 내용 전달(24%)'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선택했다. 목회자들은 '전달 방법', 교인들은 '투명성'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림] 교회 소식/정보 전달 개선 필요성 ('매우+약간 느낀다'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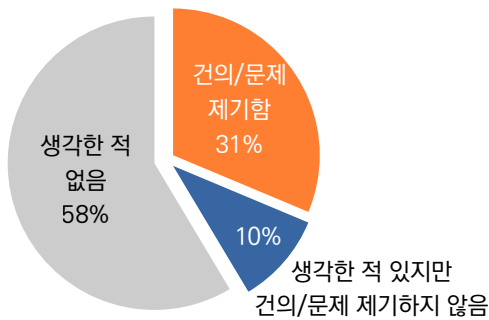
[그림] 교회 소식/정보 전달에 대한 개선사항 (교회 소식/정보 전달에 개선 필요 인식자, 상위 4위, %)



교회 문제 제기, 목회자 대부분 수용했다고 생각하지만 교인 의견은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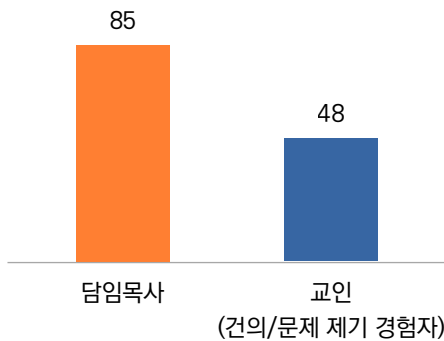
- 교회의 정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어보았다. 교인 10명 중 3명(31%)이 '건의/문제 제기했다'고 응답했으며, '생각한 적 없다'는 응답은 58%나 되었다.
- 한편, 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담임목사의 85%가 '수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건의/문제 제기 경험이 있는 교인은 48%만이 '수용됐다'고 응답해 큰 인식 차이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교회 정책 문제로 건의/문제 제기할 생각과 실천 경험 (교인)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5점 척도

[그림] 교회 정책 문제로 건의/문제 제기했던 의견의 수용 정도 ('거의+어느 정도 수용했다/수용됐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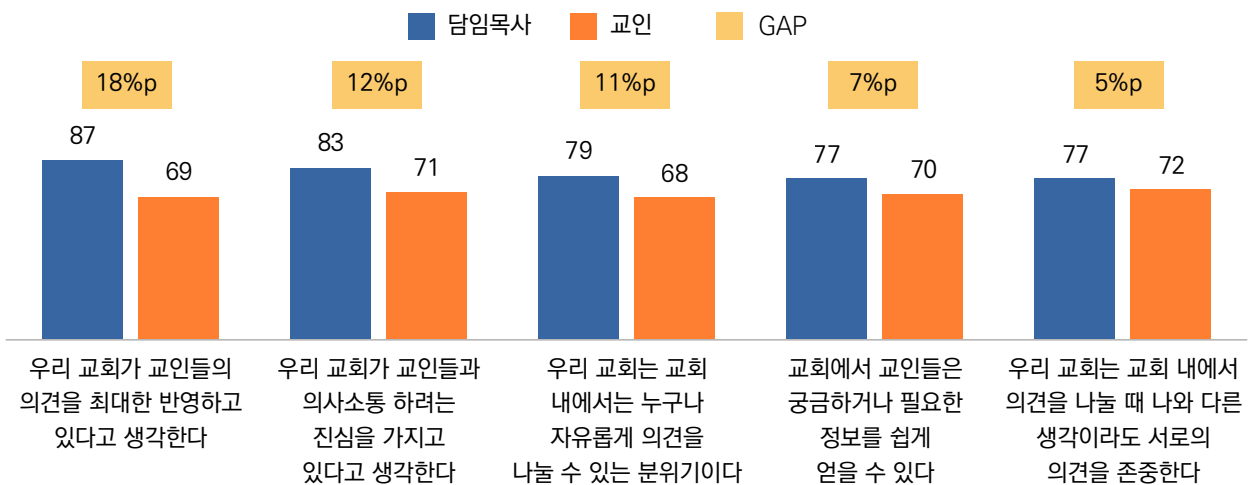
02

[교회 의사소통 문화]

교회 의사소통, 목회자 그룹이 교인들보다 더 잘 된다고 생각!

- 이번에는 교회와 교인 간의 의사소통 문화에 관한 5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파악한 결과, 담임목사는 70% 후반대 이상의 긍정 평가율을 보인 반면, 교인은 70% 내외로 나타났다. 교인의 긍정 평가율이 담임목사보다 5~18%p 낮아 교인들보다는 목회자 그룹에서 교회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잘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담임목사와 교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교회가 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로 18%p 차이를 보였다.

[그림] 교회 의사소통 문화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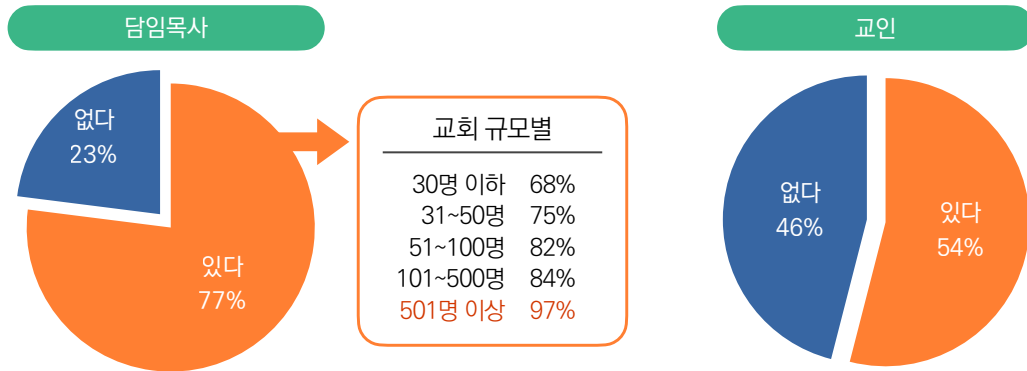


*5점 척도

목회자, 교인보다 의사소통 변화 필요성 더욱 느껴

- 교회와 교인 간의 의사소통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담임목사는 77%, 교인은 54%가 인정했다. 담임목사가 교인보다 변화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응답한 것은 현재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의 답답함을 더 느끼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 담임목사의 경우 교회 규모가 클수록 개선 필요성도 더 느끼고 있어서 501명 이상 교회는 거의 모든 담임목사(97%)가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림] 교회와 교인 간 의사소통에 대한 변화 필요성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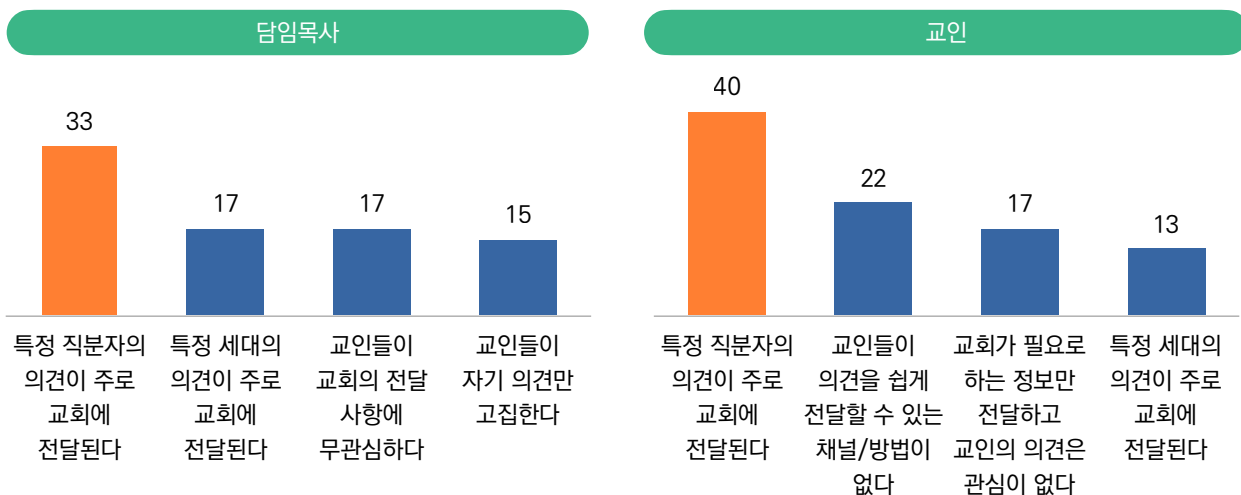


*4점 척도

교회 의사소통 문제점, '특정 직분자 의견에 집중되어 있다!'

- 교회와 교인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으로 담임목사(33%)와 교인(40%) 모두 '특정 직분자의 의견이 주로 교회에 전달된다'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담임목사는 '특정 세대의 의견이 주로 교회에 전달된다'(17%)를, 교인들은 '교인들의 의견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방법이 없다'(22%)를 선택했다. 의견 개선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순위로 담임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의 전달 사항에 무관심하다'(17%)를, 교인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소식과 정보만 전달하고 교인의 의견은 관심이 없다'(17%)를 선택해 서로 상대방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그림] 교회와 교인 간 의사소통 문제점 (교회와 교인 간 의사소통 변화 필요성 인식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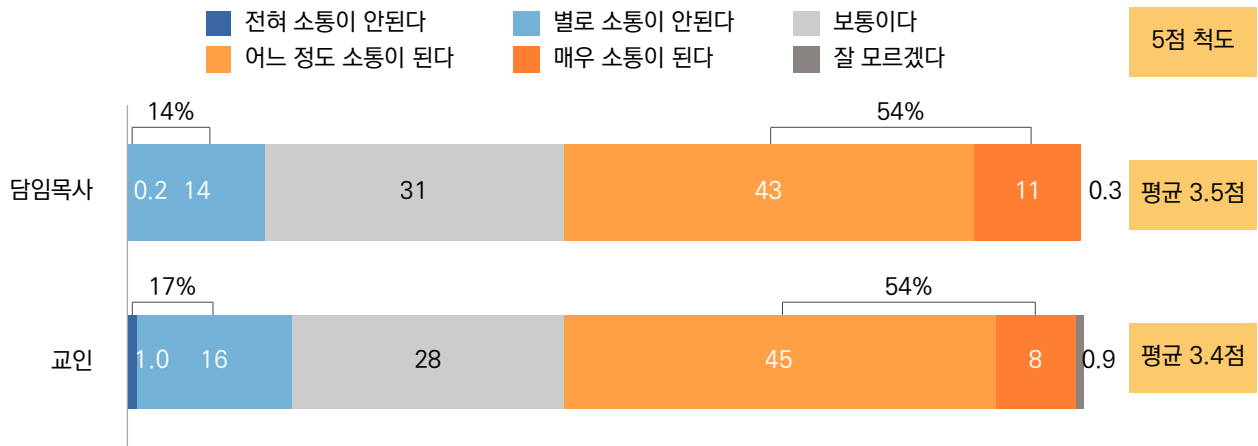
03

[세대 간 소통]

우리교회는 세대간 소통이 된다, 절반 정도!

- 교회에는 다양한 세대가 있다. 세대 간 원활한 소통도 교회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 내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는 담임목사(54%)와 교인(54%)의 절반 정도가 '소통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매우 소통이 된다'는 비율은 각각 11%, 8%에 머물러 소통의 깊이는 깊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5점 척도 평균은 담임목사가 3.5점, 교인이 3.4점으로 그다지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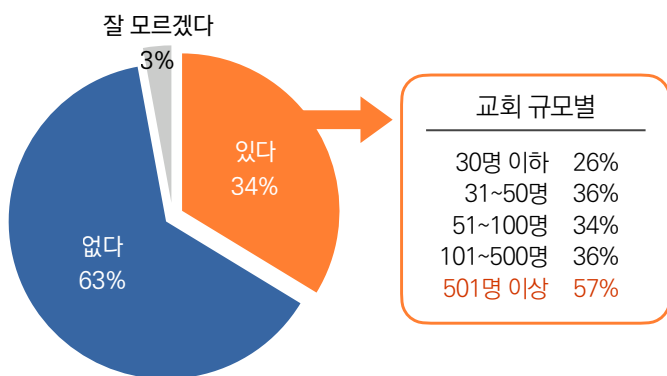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세대 간 소통 인식 (%)



3개 중 2개 교회, '교회 내 세대 간 소통 시스템 없어'!

- 이러한 세대 간 소통을 위해 '공식적인 모임, 회의, 제도'가 있는지 담임목사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만 이(34%) '있다'고 응답해 3개 교회 중 2개 교회는 교회 내 세대 간 소통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이 있는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모임/회의/제도 유무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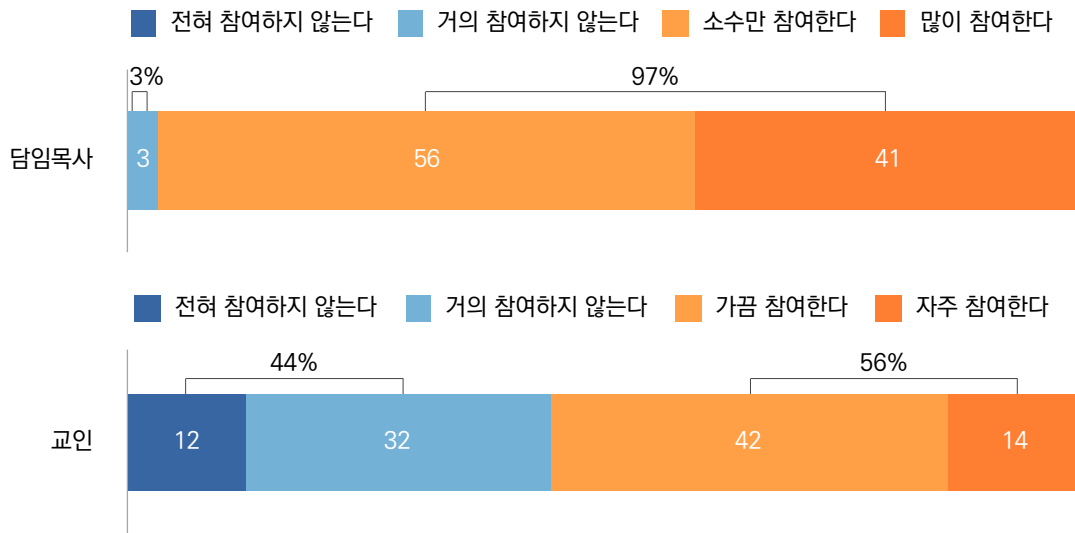
04

[교회 의사결정 평가]

목회자 '교인 대다수 의사결정 과정 참여', 하지만 실제 56%만 참여해

- 이번에는 교회의 의사결정에 관해 알아본다. 교인이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질문했을 때, 거의 모든 담임목사(97%)가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인은 56%만 참여한다고 응답해 인식과 실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자주 참여한다'는 14%밖에 되지 않아, 실제 교인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담임목사가 교인을 종직자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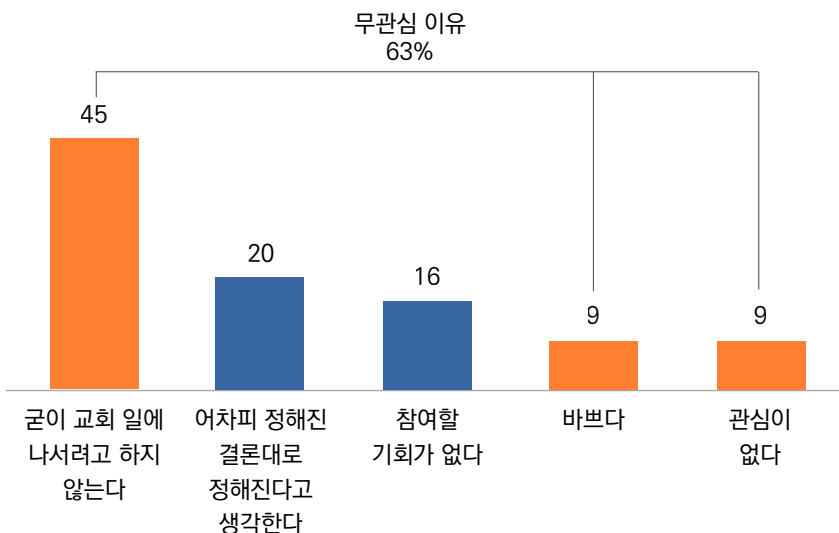
[그림] 교인의 교회 의사결정 과정 참여 여부 (%)



교인이 교회 의사결정 비참여 이유, '굳이 교회 일에 나서고 싶지 않아!'

- 교인이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굳이 교회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45%)가 가장 높았으며, '어차피 정해진 결론대로 정해진다고 생각한다'(20%), '참여할 기회가 없다'(16%) 순으로 나타났다.
- 1순위 이유에 '바쁘다'(9%), '관심이 없다'(9%)를 더하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의 63%는 교회 정책에 무관심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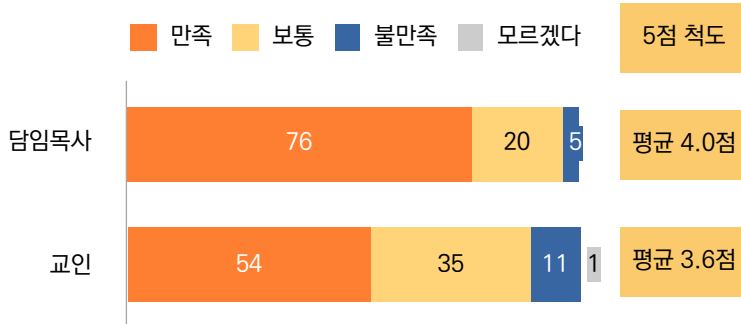
[그림] 교회 의사결정 과정 참여하지 않는 이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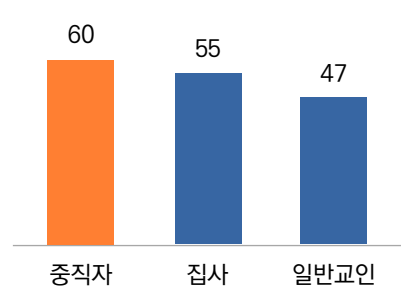
교회 의사결정 과정 만족도, 목회자 76%, 교인 54%!

- 목회자와 교인의 인식은 교회 의사결정 만족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담임목사의 76%가 '만족'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인은 54%가 '만족' 한다고 응답했다.
- 교인의 경우 직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일반교인의 만족도는 47%로 절반에 못 미쳤고, 평균(5점 척도)도 3.6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림] 교회 의사결정 과정 만족도 평가* (%)



[그림] 직분별 교회 의사결정 과정 만족율 (교인,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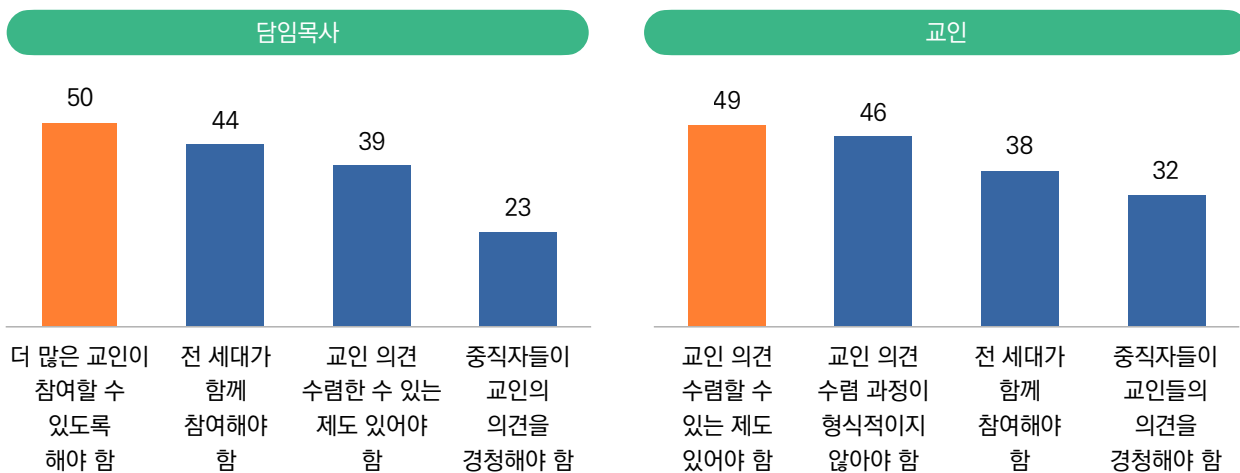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5점 척도

교회 의사결정 과정 개선점, 목회자: 참여 범위 확대, 교인: 수렴 채널 마련!

- 교회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점으로 담임목사는 '더 많은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0%)와 '전 세대가 참여해야 한다'(4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교인은 '교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49%)와 '교인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아야 한다'(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 담임목사와 교인 응답을 비교하면 상위 4개 응답은 거의 같았다. 단 담임목사는 '참여 범위 확대'를, 교인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채널'을 원하는 데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교회 의사결정 과정 개선점 (1+2순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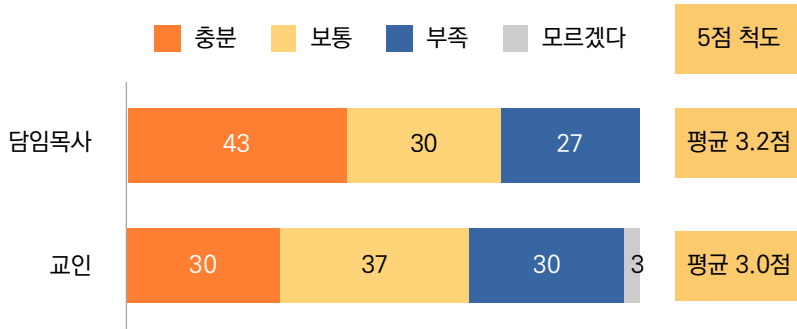


05

[교회 최고이사결정 기구 평가] 목회자와 교인 모두 '당회' 역량 낮게 평가!

- 장로교의 '당회' 같이 목사와 장로 등이 모인 최고이사결정 기구를 설명하고 교회 내 이러한 최고이사결정 기구가 교인의 영적 필요와 교회 주요 정책을 결정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 물었다. 그 결과 '충분하다' 응답이 담임목사 43%, 교인 3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량에 대한 평가가 낮았는데, 담임목사보다 교인이 최고이사결정 기구의 역량에 대해 더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림] 교회 최고이사결정 기구의 역량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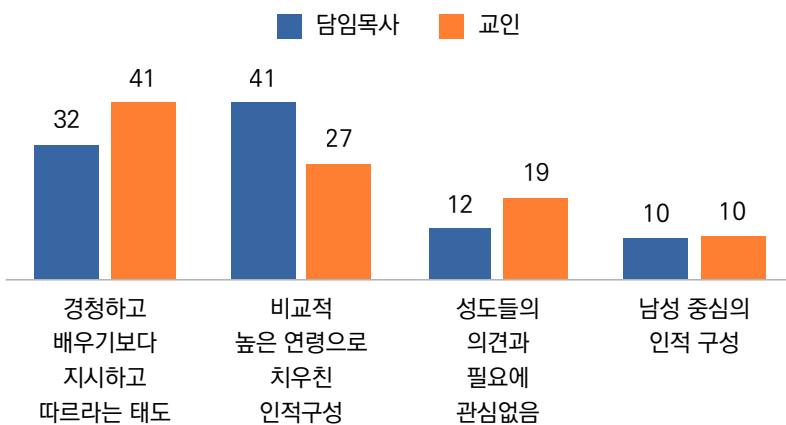


*5점 척도

최고이사결정 기구 역량 부족 이유, 목회자: 고령자 중심, 교인: 권위주의적 문화

- 최고이사결정 기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담임목사는 '비교적 높은 연령으로 치우친 인적 구성'(4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다음으로 '경청하고 배우며 알아보기보다 지시하고 따르라는 태도'(32%)를 선택했다.
- 반면 교인은 '경청하고 배우기보다 지시하고 따르라는 태도'(41%)가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으로 '비교적 높은 연령으로 치우친 인적 구성'(27%)을 선택했다.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담임목사와 교인 모두 '고령층 위주의 리더 구성'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그림] 교회 최고이사결정 기구 역량 부족 평가 이유 (최고이사결정 기구 역량 '부족' 평가자, %)



이번호 요약

1. 의사소통 관련한 목회자와 교인과의 인식 차이 간격 커

- 교회 정책 관련하여 담임목사의 85%가 제기된 문제를 '수용했다'고 응답했지만, 교인은 48%만이 '수용됐다'고 응답했다.
-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담임목사 76%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인은 5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 교회 내 의사소통/결정의 문제점, '특정 직분자, 고령자 중심'과 '권위적인 태도'!

- 교회/교인 간 의사소통 문제점으로 담임목사(33%)와 교인(17%) 모두 '특정 직분자 의견이 주로 교회에 전달된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 당회 같은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역량 평가는 '충분하다' 응답이 담임목사 43%, 교인 30%로 낮았으며, 역량 부족 이유로 담임목사는 '고령자 중심 구성'을, 교인은 '권위적인 태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목회자의 경청, 당회의 섬김이 원활한 교회 소통 만든다” (국민일보)
- ▶ [영상] 10년 동안 3040 절반이 교회 떠난 이유를 보니 (지용근 대표, CBS광장)

관련 성경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목회 적용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혈연적 관계 용어인 '형제'를 사용하셨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각 지체들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다. 이는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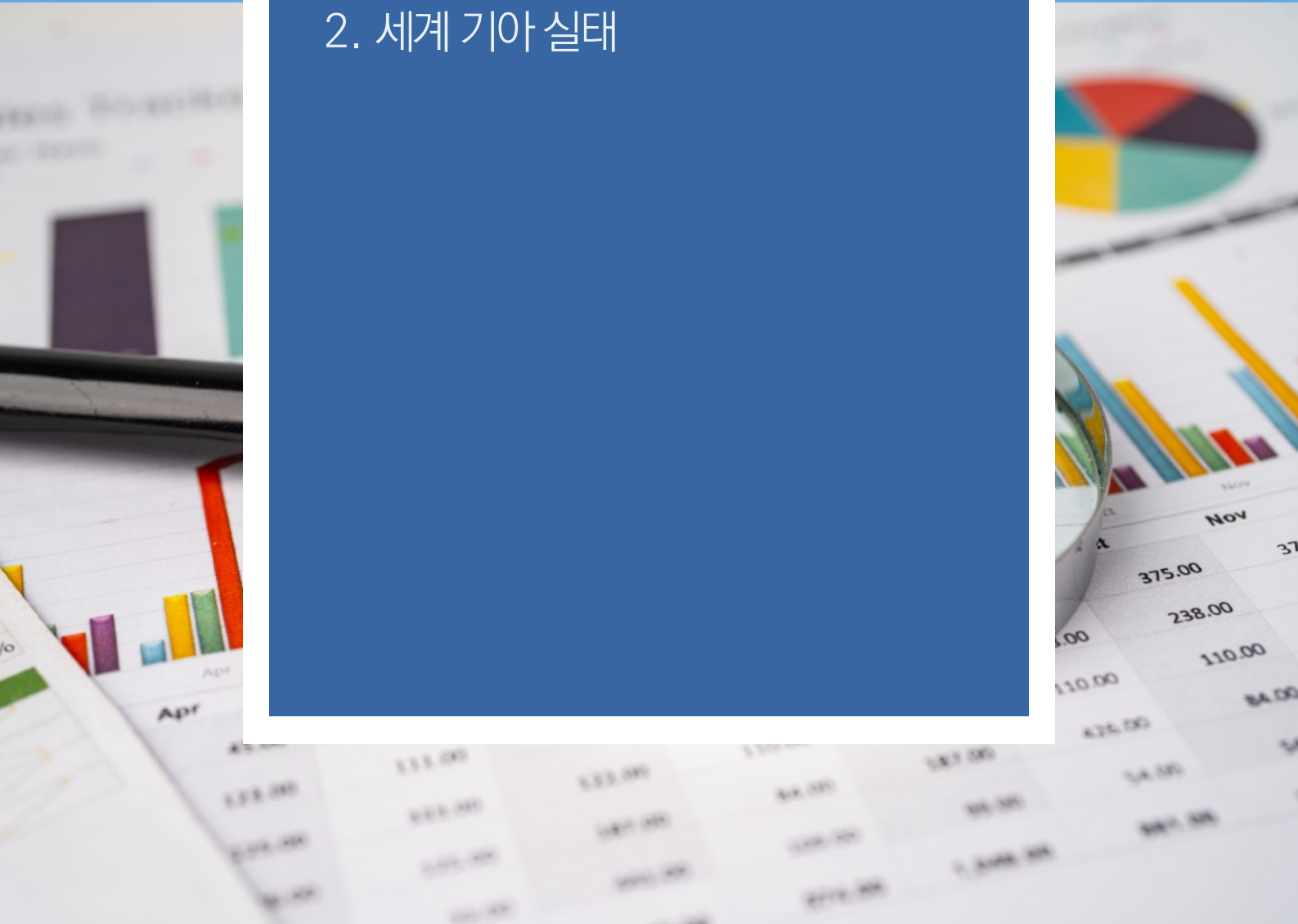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교회 내 소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와 교인 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주로 특정 직분자에게 물려있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우선 교회 리더들은 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대의제를 따르고 있는 현재의 교회(특히 장로교회) 구조에서는 특정 직분자, 세대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대체로 고령층이다. 세대별 가치관이 확연하게 다른 시대에 고령층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은 4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여성 등 세대 또는 그룹별 대표자가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교회 내 소통력을 강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지금은 성도가 자신이 교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사역할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내부적으로 건강해지고 외부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인식
2. 세계 기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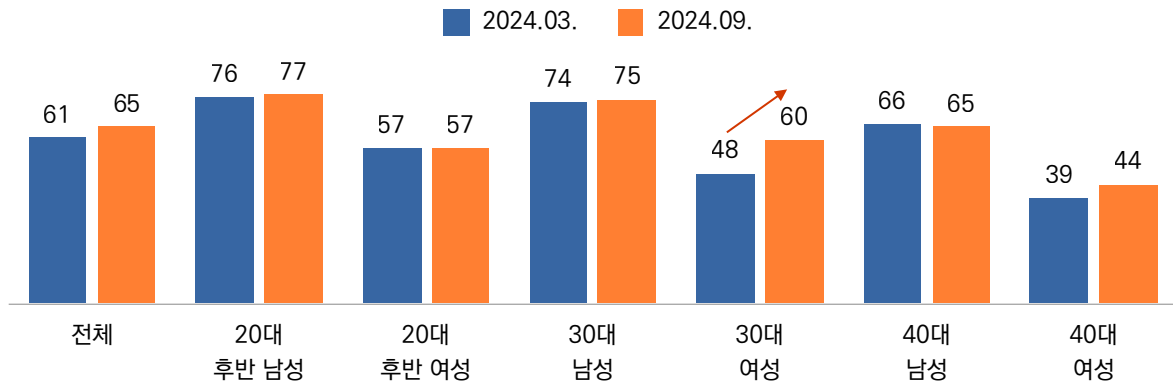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인식] 미혼 국민의 결혼 의향, 반년 전보다 증가

-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와 동일한 방향으로 구성하여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한 결과이다.
- 만 25~49세 미혼 국민에게 결혼 의향을 물어본 결과 3명 중 2명(65%) 정도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6개월 전 조사보다 4%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결혼 의향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률이 6개월 전 조사보다 크게 증가(48%→60%)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결혼 의향* (만 25~49세 미혼, '구체적 계획 있음+지금 하고 싶음+언젠가는 하고 싶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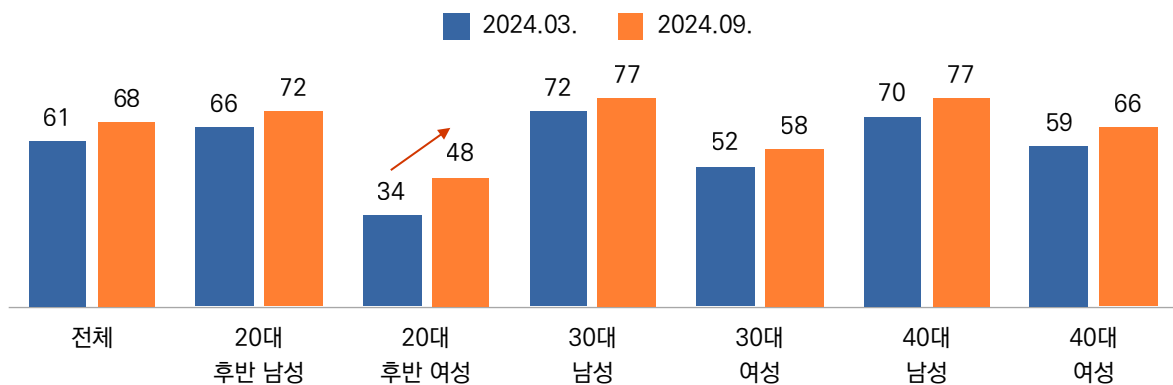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2024.10.14. (전국 만 25~49세 일반국민 2,592명, 모바일조사, 2024.08.31.~09.07.)

*모든 보기 : 구체적인 계획 있음, 지금 하고 싶음, 언젠가는 하고 싶음,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음, 생각해 본 적 없음/모르겠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 2024년 1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통상 연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1분기에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국민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만 25~49세의 일반 국민 10명 중 7명(68%) 정도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자녀 필요성 동의율은 6개월 전 조사 대비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증가 비율(34%→48%)이 두드러졌다.

[그림] 자녀의 필요성 인식* (만 25~49세 일반 국민,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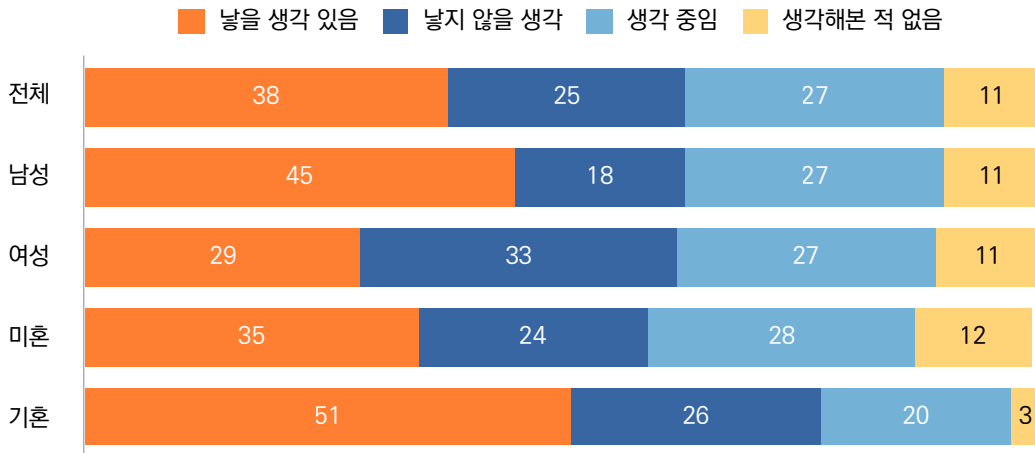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2024.10.14. (전국 만 25~49세 일반국민 2,592명, 모바일조사, 2024.08.31.~09.07.)

*4점 척도

미혼자, 결혼 시 자녀 낳을 의향 35%로 매우 낮아!

- 이번에는 현재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출산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38%에 불과해 앞서 자녀의 필요성 인식 비율(68%)보다 크게 낮았다. 자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 출산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특히 미혼자의 향후 출산 의향률이 35%로 매우 낮았으며, 무자녀 기혼자의 출산 의향률도 절반(51%)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은 향후 출산율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결과이다.

[그림] 출산 의향 (만 25~49세 무자녀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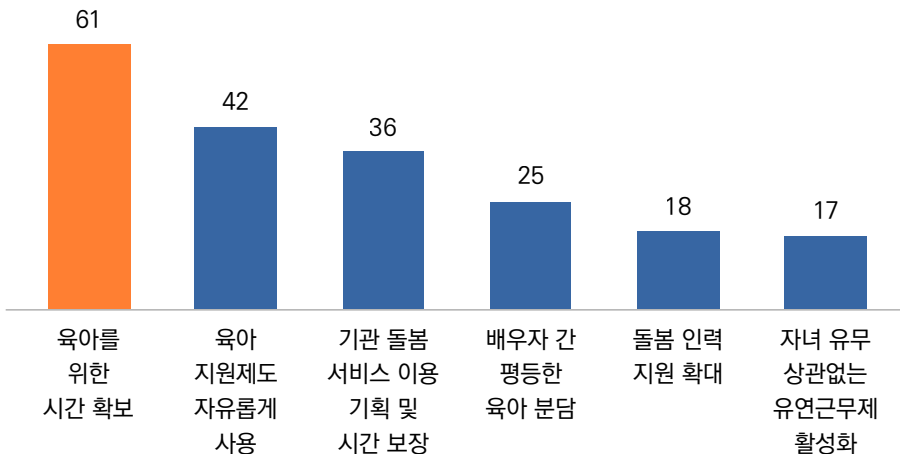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2024.10.14. (전국 만 25~49세 일반국민 2,592명, 모바일조사, 2024.08.31.~09.07.)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선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 가장 필요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바 있다.
- 이중 '일·가정 양립'은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인데, 이와 관련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았다.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6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육아지원제도 자유롭게 사용' 42%,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 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만 25~49세 맞벌이 가구, 1+2순위, %)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2024.10.14. (전국 만 25~49세 일반국민 2,592명, 모바일조사, 2024.08.31.~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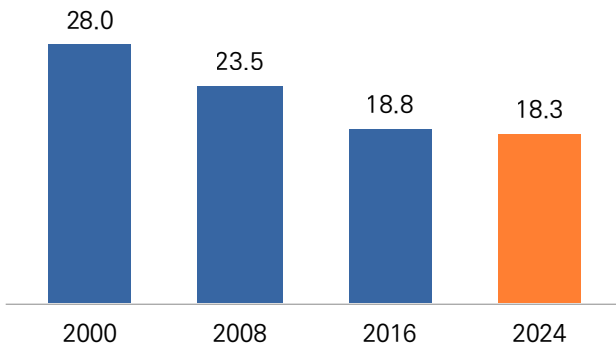
*4점 척도



[세계 기아 실태] 세계 기아 수준, 최근 8년 동안 진전 둔화!

- 지난 10월 10일 국제 인도주의 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2024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를 발표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하는 이 보고서는 영양결핍, 아동 발육부진, 아동 저체중, 아동 사망률을 바탕으로 매년 각 국가의 기아 수준을 분석한다.
- 세계기아지수는 2000년 28.0점에서 2016년 18.8점까지 지속적 하락해왔으나 2024년 18.3점으로 8년 전 대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아지수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유지된다면 2160년까지 최소 64개국에 낮은 기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림] 세계기아지수(GHI)* 추이 (세계 136개국 조사, 점)



※출처 : Concern Worldwide, '2024 GLOBAL HUNGER INDEX', 2024.10.10.

*세계기아지수(GHI): 4가지 기준으로 산출

영양 부족(1/3):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 못하는 인구 비율

아동 발육 부진(1/6): 5세 미만 아동 중 키에 비해 체중이 적은 아동 비율

아동 발육 저하(1/6): 5세 미만 아동 중 나이에 비해 키가 적은 아동의 비율

아동 사망률(1/3): 만 5세 전 사망하는 아동의 비율

북한 기아 수준,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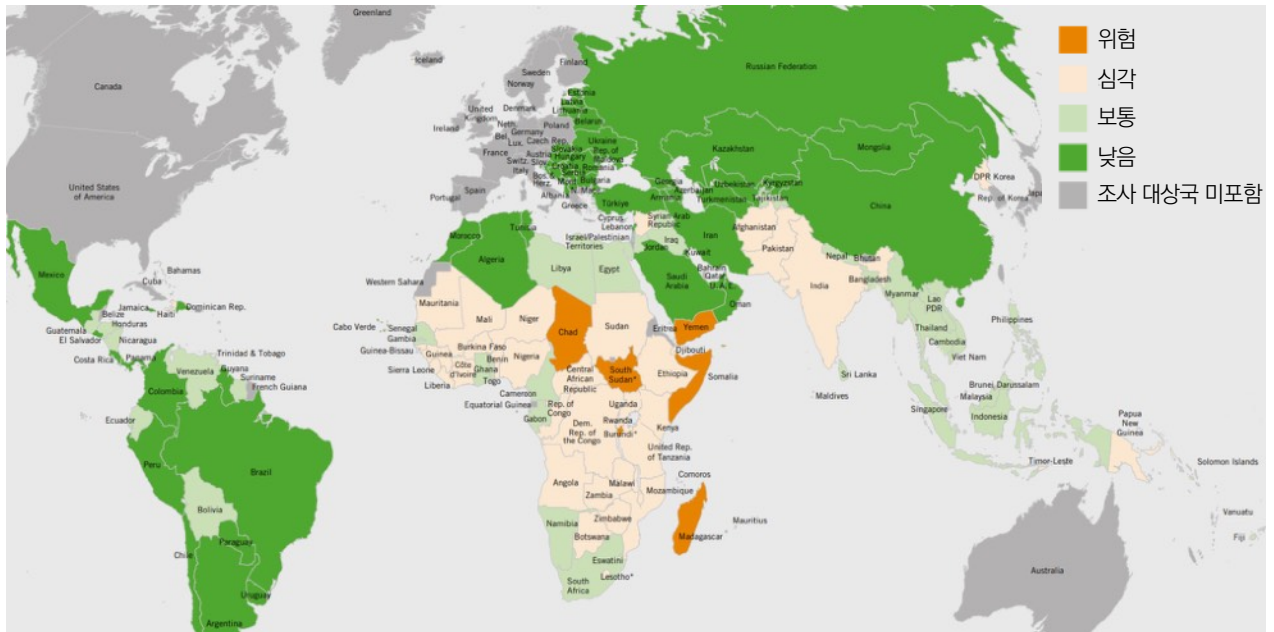
- 세계기아지수가 20점 이상이면 '심각' 이상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136개국 조사국 중 42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 상위 20개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31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기아지수를 기록했다.

[표] 세계기아지수(GHI)* 상위 20개국 (세계 136개국 조사, 점)

순위	나라	GHI 지수	순위	나라	GHI 지수
1	부룬디	35~49 추정	11	라이베리아	32
1	남수단	35~49 추정	1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2
3	소말리아	44	13	북한	31
4	예멘	41	14	시에라리온	31
5	차드	36	15	아프카니스탄	31
6	마다가스카르	36	16	잠비아	31
7	레소토	20~35 추정	17	기니비사우 공화국	31
8	콩고	35	18	시리아	30
9	아이티	34	19	수단	29
10	니제르	34	20	파푸아뉴기니	29

※출처 : Concern Worldwide, '2024 GLOBAL HUNGER INDEX', 2024.10.10.

[그림] 2024 세계기아지수 심각도



※출처 : Concern Worldwide, '2024 GLOBAL HUNGER INDEX', 2024.10.1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98호 \(2024년 10월 3주\)](#)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소설

사회 일반

[한강, 노벨문학상 탔지만...책 안 보고 문해력 처지는 한국학생](#)

연합뉴스_2024.10.16.

[내한몰 건사하기도 힘들어...노인 4명 중 1명 "재산 쓰고 가겠다"](#)

연합뉴스_2024.10.16.

[\[단독\] 작년 조산아 2만명... 의대 3곳은 받아줄 교수 0명](#)

조선일보_2024.10.16.

[나홀로 삶에 치인 중장년, 고단한 삶을 놓는 청년들... 고독사](#)

국민일보_2024.10.18.

[공간 걱정애 소송전까지...전공의 떠난 병원들 '보릿고개'에 한숨](#)

연합뉴스_2024.10.17.

[네카오는 줄었는데...한국인 인스타그램 본 시간 1년 새 42% 급증](#)

연합뉴스_2024.10.20.

[기부하거나, 페라리 뽑거나, 위자료 주거나... 노벨상 상금을 쓰는 법](#)

조선일보_2024.10.21.

[그 섬의 여자는 참지 않는다... '이혼율 1위' 도시의 속사정](#)

중앙일보_2024.10.21.

['영 케어러' 절반, 홀어머니 봉양 "간병·생계 부담... 대학 꿈도 못꿔"](#)

조선일보_2024.10.21.

[감정노동자 보호법 6년... "피해자 62%, 갑질 참거나 모른 척"](#)

연합뉴스_2024.10.20.

["워라밸' 좋아야 출산율 높다"...한국은 OECD 밑바닥](#)

한겨레_2024.10.20.

[감정 문해력 및 소통 습관\(그룹\) 관련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4.10.15.

청년 · 청소년

[일자리 줄고 집값 켑충...30대 남성 켑거루 급증](#)

중앙일보_2024.10.15.

[도박 범죄소년 10년 사이 5.5배 급증...촉법소년 올해만 45명](#)

동아일보_2024.10.1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 긍정적"...적정 나이는 65.7세](#)

연합뉴스_2024.10.21.

["오늘 '칼퇴' 하십니까?"... 직장인 퇴근시간 5년 전보다 19분 빨라져](#)

조선일보_2024.10.16.

[한국 잠재성장률 2.0%...2년 연속 미국에 추월당했다](#)

중앙일보_2024.10.21.

["미술랭 스타 식당도 줄폐업하는데"...2030대 창업, 절반은 요식업 뛰어든다](#)

매일경제_2024.10.21.

국제 · 환경

[한국인 평균 IQ 세계 5위... 1위는 바로 '이 나라'](#)

동아일보_2024.6.28.

[세계 GDP 10% 날아간다...'中 대만침공' 시뮬레이션 해보니](#)

조선일보_2024.10.20.

[2024년 여름 날씨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10.15.

건강

['건강 수명' 서울 71.20세, 세종 71.09세 1·2위...부산 69.35세로 최저](#)

동아일보_2024.10.17.

[당신 뇌 안에 문제 있을 수 있다...눈꺼풀 떨림, 이럴 땐 병원 가야](#)

중앙일보_2024.10.19.

기독교 · 종교

["장로 되려면 3000만원"... 임직 현금 마련하려 대출까지](#)

국민일보_2024.10.21.

["임직, 명예 아닌 멍에"... 각오·기대·격려 오가는 자리 돼야](#)

국민일보_2024.10.22.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교육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연구소 소식. 다음주 [넘버즈] 휴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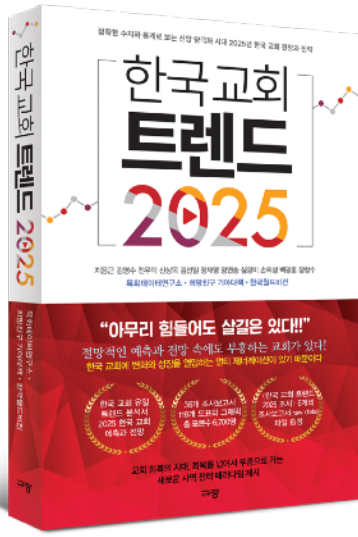
다음 주(10월 29일)는 5주 차(화요일 기준) 연구주간으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목회데이터연구소와 서울드림교회는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싱글에 대해 주목하여, 싱글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

※ 본 기자회견은 목회데이터연구소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를 출간한 이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